

HANNAM DREAM



한남대학교 소식지

2023 Spring Vol. 37



Warm Hearts, Creative intellects

인성중심 창의인재

가치를 빛다,
세상을 빛내다

한남대학교 소식지

2023 Spring • Vol. 37



한남대학교 교정에 벚꽃이 활짝 폈다.
경상대학 앞 벚꽃

발행일 2023년 5월

발행처 한남대학교

발행인 이광섭

편집인 장수익

글·사진 김민영, 고상범, 장효진

제작처 한남대학교 입학홍보처 홍보팀

www.hannam.ac.kr

이 책의 저작권은 한남대학교에 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사진을 포함한 모든 내용은

저작권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 또는 전재될 수 없습니다.



STORY 1

한남대 재능인들의
이야기

04 모교 사랑 담은
'한남두유' 이야기

07 잘나가는 한남대 축구부를
소개합니다.

10 중증 자폐장애인 미술학도의
캠퍼스 생활기



STORY 2

창업명문 한남대
이야기

- 13 K-한복 선도하는
패션디자인학과
- 김정아 교수
- 16 IT 접목한 도서출판
'소라피리'
- 이은하 교수
- 19 '보이스피싱 차단기술'이
주목받는 이유
- 강필상 졸업생
- 21 이광섭 총장의
한남대 자랑
- 이광섭 총장

STORY 3

마음 따뜻한
이야기

- 24 발전기금 2억원 쾌척한
80대 노교수의 '나비효과'
- 서초순 명예교수
- 26 봉사는 내 삶의 동기부여
한남대 봉사왕
- 사회복지학과 민윤정 졸업생
- 27 학생들이 뽑은
최고의 교수는?
- 경영학과 박경희 교수
- 28 '빛나는 연구업적'
윤국노, 이성용 교수의
연구실 이야기
- 화학과 윤국노 교수,
영어교육과 이성용 교수

STORY 4

학생들의
활약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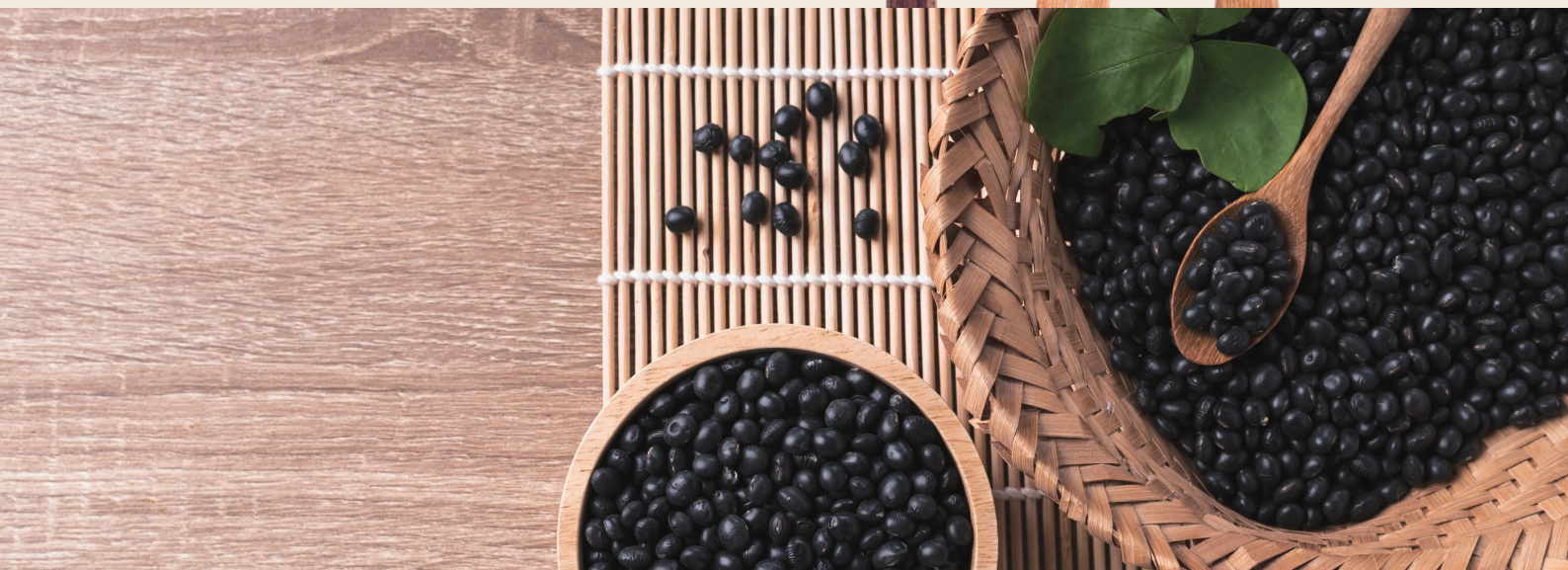
- 29 교사 양성의 메카
한남대 사범대학
- 30 3년만에 재개된
해외 봉사 '눈길'
- 31 디자인팩토리
국내최초 콜롬비아
현지기업과 산학협력

모교 사랑 담은 ‘한남두유’ 이야기

STORY 1

한남대
재능인들의
이야기

“한남두유는
수익보다는 학교 홍보의
목적이 큼니다.
10만 동문들에게
모교에 대한 애착심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전 · 충청 1등 사립대학
한남대학교의 동문들이
학교 이름을 걸고
새로운 도전장을 냈다.

한남대학교 동문들이
힘을 합쳐
동문기업을 설립하고,
모교 이름을 딴
'한남두유'를 출시한 것.

서울 · 경기 지역에서 활동 중인 한남대 재경 동문회는 비즈니스 포럼을 조직하고 적극적인 포럼활동을 해왔다. 재경동문회 소속 동문들 가운데 기업을 운영해본 경험을 가진 동문들이 많았고, 이들은 '동문들이 학교를 위해 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다.

최월성 재경동문회 고문(독문과 졸업, ㈜고비코리아 회장)이 먼저 아이디어를 냈다.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동문 20여명이 뜻을 함께했고 ㈜한남유니온(대표 김영태)이 설립됐다.

동문들의 활약이 빛났던
제품 출시.



한남두유는 수도권 대학과 같은 탄탄한 기반은 없지만, 동문들의 재능 하나하나를 모아 제품을 만들어냈다.

한남유니온 김영태 대표는 한남대 영문과 출신으로 현대백화점에 사원으로 입사해 사장까지 역임했던 전문경영인이다. 30여년간 현대백화점에서 일하며 쌓아왔던 그의 마케팅 능력과 전문 경영 능력을 한남두유에 쏟아내고 있다. 김 대표는 '명품' 분야의 전문가로 손꼽힌다. 현대백화점에 명품 브랜드 런칭과 MD, 섭외 등 명품 전문가이자 현재의 백화점 위상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한남두유 생산은 ㈜논산딸기랜드 안성찬 대표(경제학과 졸업)가 맡았다. 논산딸기랜드는 유명 두유와 우유 제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OEM 업체이다. 안 대표의 제품 제작 노하우를 학교 이름을 건 '한남두유'에 고스란히 녹여냈다.

마케팅 분야는 사업을 제안했던 최월성 재경동문회 고문이 활약했다. 유명 홈쇼핑을 통해 한남두유의 홈쇼핑 런칭을 성사시킨 것이다. 홈쇼핑 진입은 소위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정도로 중소기업 사이에서 어려운 일로 정평이 나있다. 이밖에 동문들의 인맥을 통해 12개 온라인 마켓에 제품을 입점시켰으며, 온라인숍도 개설했다.

Fig. 01
한남대 영문과 출신
한남유니온 대표 김영태

Fig. 02
한남두유





03

한남두유는 후배사랑, 학교사랑

한남두유가 출시되면서 ㈜한남유니온에 참여하겠다는 동문들이 줄을 이었다. 뜻을 함께한 동문 20명이 초기 자본 2억여원을 모아 사업을 시작했다. 제품 생산 이후 판매 수익의 일정 부분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자동 기탁하기로 했다. 이러한 취지는 동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남두유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른 품목을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동문들의 참여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영태 대표는 “한남두유는 출발자체가 독특하다보니 동문들 사이에서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돼 ㈜한남유니온 기업에 참여하겠다는 동문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남두유, 두유의 새 역사를 쓸 수 있는 맛과 영양 ‘보장’

한남두유는 제품 출시 이후에도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며 맛을 보완해왔다. 기존의 제품보다 달지 않기를 원한다는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고, 진하고 고소한 제품을 원하는 니즈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여러번 보완된 제품을 출시했다.

Fig. 03
100% 국산 서리태를
껍질까지 맷돌 방식으로
갈아 만든 ‘한남 두유’
국산 15곡물 혼합분말 등
건강한 재료를 엄선했다
정직한 제품이다.

한남두유는 100% 국산 서리태를 껍질까지 맷돌 방식으로 갈아 만들었으며, 폐루의 산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향산화에 좋은 ‘마카’와 바다에서 나는 죽순인 ‘해죽순’, 해조류에서 추출한 해조칼슘, 국산 곡물로만 만든 15곡 혼합분말 등 건강한 재료를 엄선했다. 소포제와 유화제, 안정제, 합성향료, 합성색소 등 화학 첨가물이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학교의 이름을 걸고 정직한 제품을 만들어냈다.

지난해 ㈜한남유니온은 한남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제품 포장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했다. 공모전 수상 작품을 선정해 두유 포장 디자인과 제품 캐릭터를 만들어낸 것도 의미가 크다.

㈜한남유니온 박현식 전무(응용통계학과 85학번)는 “한남두유는 사실 수익 창출을 위한 기업의 제품 출시라는 개념보다는 학교 홍보의 목적이 크다. 학교도 알고 10만 동문들에게 모교에 대한 애착심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두유 외에도 다른 품목의 출시 계획도 갖고 개발중에 있다”고 말했다.

잘나가는 한남대 축구부를 소개합니다.

STORY 1
한남대
재능인들의
이야기



1년사이 전국대회 두 번의 우승, 개인 득점 5위권 중 4명이 한남대 소속

한남대 축구부가 1년 사이 전국대회를 두 번 제패하며 새로운 축구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선수층과 규모 등에서 타 대학 축구부와 견줄 수 없었지만, 투지와 열정을 당당히 실력으로 보여주고 있어 대학 축구리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동안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며 부진했던 한남대 축구부는 지난 2020년 추계와 춘계 대학축구연맹전에서 2차례 연속 4강 진출 소식을 전해왔다. 2020년부터 새롭게 감독직을 맡게된 박규선 감독의 부임 이후 첫 성과였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불과 1년 사이 전국대회 우승 연속 2회라는 성과를 냈다. 다량득점 축구로 유명한 한남대는 현재 대학 리그 개인 득점 순위 1~5위에 4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기도 하다.





Fig. 01
백두대간기 우승

Fig. 02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우승

1

2022년 제17회 대학 1, 2학년 축구연맹전 백두대간기 우승

지난해 7월 한남대 축구부는 '제17회 1, 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백두대간기' 정상에 올랐다. 강원도 태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한남대는 고려대를 상대로 4대 3 승리를 이끌며 우승컵을 차지했다. 한남대는 조별리그 3경기에서 16골을 넣으며 6조 1위로 본선에 올랐다. 4강에서 호남대를 3대 2로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는 아주대와 접전 끝에 승리한 고려대였다. 한남대는 초반 6분만에 선제골을 넣은 이후 2분 뒤에 추가 골을 넣었다. 전반전에만 3골을 몰아넣으며 승리를 예감했으나 후반 고려대가 맹추격해 3대 3 동점 상황까지 몰렸다. 종료 직전 한남대는 교체돼 들어간 정은찬 선수가 결승 골을 넣으며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결승 경기에 교체자원까지 15명을 모두 기용하고 우승을 차지해 더욱 값진 승리였다.



2

2023년 제59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우승

한남대 축구부는 올해 2월 26일 경남 통영 산양스포츠파크 3구장에서 열린 제59회 춘계 대학축구연맹전 통영기 결승에서 연세대와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정규시간 동안 2대 2로 승패를 가리지 못했으나 승부차기에서 5대 3으로 승전보를 올렸다. 한남대는 우승을 차지하기까지 조별리그 포함 대회 7연승을 질주했다. 한남대는 대회 최다 우승 기록(11회)을 가진 연세대에 맞서 강한 공격력으로 밀어붙이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력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한남대 박규선 감독이 최우수지도자상을, 김동진 선수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상을 휩쓸었다. 춘계대회 정상은 창단 이래 이번이 처음이었다.

Fig. 03
축구부 우승 축하 행사

Fig. 04
우승 기념식수



3 국가대표 출신 박규선 감독이 이끄는 새로운 전성기

한남대 축구팀은 박규선 감독이 취임한 이후 성적 변화가 두드러졌다. 박 감독은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 2004년 아테네올림픽 등 대표팀을 거친 국가대표 출신이다. 선수 시절 울산현대와 전북현대 등을 거친 실력자로 2010년 은퇴 후 한남대 축구부 감독이었던 이상래 감독과의 인연으로 한남대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이상래 감독 은퇴 이후 지난 2020년 1월 새롭게 감독직을 맡은 박 감독은 현재 팀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다. 학생들과 스스럼없는 대화와 상담 멘토 역할을 자처하면서 형으로, 선배로 선수들과의 높은 신뢰 관계를 쌓고 있다.

4 ‘골 폭격기’ 한남대, 권역내 개인 득점 5위 안에 4명 진입

한남대는 다량득점 축구로 유명하다. 2023학년도 대학축구 U리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한남대는 개막 2경기만에 8득점을 터뜨렸다. 지난 4월 14일 울산대와 가진 경기에서 한남대는 6대 0이라는 스코어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남대 축구팀은 훈련에서도 공격수들은 항상 실전처럼 슈팅하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골 점유율이 높고 공격적인 축구를 고수하면서 개인 득점 성적은 자연스럽게 뒤따라 왔다. 득점순위 1~5위 선수 중에 한남대 소속 선수가 무려 4명에 이른다. 1위 배도현 선수, 2위 김민재 선수, 3위 최성웅 선수, 5위 김민기 선수가 주인공이다.



중증 자폐장애인 미술학도의 캠퍼스 생활기

STORY 1

한남대
재능인들의
이야기



한남대 회화와 신입생 김지우씨

“지우 수업에 동행해주는 서진이가 있어 큰 걱정을 덜었어요. 잘 챙겨주고 도와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서양화 수업이 진행 중인 한남대 회화과 강의실. 2급 중증 자폐를 가진 김지우(19)씨는 같은 학과 친구이자 장애학생도우미인 하서진(19)씨의 도움을 받으며 진지하게 수업에 참여했다. 큰 캔버스를 채워나가며 지우씨는 한시도 작품에 눈을 떼지 않는다.

지난 3월, 김지우씨는 한남대 아트&디자인테크놀로지 대학 회화과에 일반전형으로 합격해 어엿한 대학생이 됐다. 실기시험을 비장애인 수험생들과 경쟁하고 일반전형으로 합격하는 과정은 자폐인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집중력이 약한 중증 자폐인에게 5시간의 실기 시험 과정은 사실상 기적에 가깝기 때문이다. 지우씨는 어린 시절부터 오랜 시간 무언가에 집중하기는 어렵지만 유일하게 그림을 그리는 시간만은 고도의 집중력을 보였다.

한남대 회화과 김지우씨와
장애학생도우미 하서진씨



한남대 회화과 신입생 김지우씨와
같은 학과 친구들



김지우씨는 캐릭터 디자이너가 꿈이다.
100여개의 이모티콘을 개발한 작가이기도 하다.

어머니 신여명(50)씨는 “지우가 3세 때 미술 치료를 받으며 토끼를 그렸는데, 토끼 얼굴 표정이 재미있었다. 그림에 스토리를 담아내는 재능이 있었다”라며 “지우가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행복해했지만, 입시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대학에 합격할 것이라 생각 못했는데, 3개 대학에 모두 합격했고 그중 가장 진학하고 싶었던 한남대에 입학하게 돼 너무 부듯하다”고 말했다.

한남대 진학 후 어머니 신씨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찾았다. 한남대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지우의 학교생활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다. 장애학생도우미 지원은 물론, 학과 교수와 교양수업 교수들에게 지우의 상황을 알리고 불편함 없는 캠퍼스 생활을 하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한남대 회화과 신입생 김지우씨와
엄마 신여명씨

지우 입학 소식에 회화과 교수들은 학과 회의를 열고 전체 학생들에게 지우의 장애에 대해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신씨는 “지우가 다른 학생들의 학과 수업에 방해가 될까 걱정을 많이 했었다. 학교 측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기대 이상으로 지우가 친구들과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의 날’을 앞둔 4월 17일부터 5일간 세종시교육청 1층 갤러리에서 열리는 ‘장애인권 주간 특별 초청전시회’에서도 지우씨의 작품이 걸렸다.

지우씨는 최근 캐릭터 디자인과 이모티콘 개발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미 수십 종류의 캐릭터를 그려내고 이모티콘으로 만들어냈다.

지우씨는 앞으로의 꿈을 묻는 질문에

“그림책 삽화 작가도 하고 싶고, 인테리어 디자이너, 캐릭터디자이너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지우씨의 작품

좌. 눈꽃이 내리는 꽃 한송이 우. 캣순이와 독돌이의 쌍둥이 고양이자매



STORY 2

창업명문
한남대 이야기

KIM,
JEONG-A

김정아 교수



**K-한복 선도하는
패션디자인학과 김정아 교수**

“한복은 더 이상 고루한 전통복식이 아니에요.

K-POP스타들이 한복을 찾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트렌디한 옷이 됐어요”



‘한복입고 선교사촌 방문하기’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

한남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김정아 교수는
한국의 문화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전통이 주목받고
한복의 아름다움 역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복궁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여행의 ‘핫플레이스’가 됐고 그곳에서의 한복 체험은 ‘방문 필수코스’가 된 지 오래다. 경복궁 근정전 앞에서 BTS(방탄소년단)가 한복을 입고 공연 실황을 펼쳤고, 블랙핑크가 미국 최대 음악 축제에서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는 등 한복사랑을 펼치면서 국제무대에서 한복은 더 이상 낯선 옷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오랜시간 전통복식과 한복 분야의 명성을 쌓아오고 있는 한남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한남대 선교사 흔적 “전통복식의 보물 될 것”

김정아 교수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박물관 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우연히 취득한 박물관 학예사 자격증은 선교사 한복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한남대학교 박물관 부관장을 맡으면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 가운데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보물은 엘라 레이놀즈 선교사가 착용했던 한복이었다. 노출 전시를 해오면서 색이 바랬지만, 유물의 가치는 대단했다. 김 교수는 “전국적으로 국내에 정착한 선교사들이 한복을 착용했다는 기록은 일부 발견되고 있지만, 실제 착용했던 한복을 소장하고 있는 곳은 드물다”며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큰 유물”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유물적 가치는 충분하지만 훼손된 선교사 한복을 재현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특수대학원과 연계해 한남대가 소장하고 있는 1910년~1920년 선교사 한복 재현 작업을 진행중이며 오는 6월말 1차로 저고리 3벌과 치마 복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는 “한복에 엘라 레이놀즈 선교사의 이름이 선명히 써여져 있으며, 당시 한국문화에 섞이기 위해 푸른논의 선교사가 한복을 입고 생활했었던 흔적”이라며 “복원이 완료되면 학교내 박물관과 외부 전시회 등을 하고 선교사 한복을 알리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교사촌과 한복이 만나면?

한남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김정아 교수팀은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 공예 · 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 한복 전문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5년연속 한복전문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 한남대는 지방대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사업비 3500만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2023학년도 1 · 2학기에 ‘한복, 근대를 만나다’라는 교양과목으로 개설된다.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한복과 선교사촌을 연결해 보는 수업을 진행했다.





김경아 교수가 학생들의 졸업작품을 지도하고 있다.

한국복식사와 달리 이번 김 교수의 교양과목은 한남대와 선교사촌의 사료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근대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의 한복 착용 및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근대한복의 역사를 학생들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게기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강의 커리큘럼 중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한남대 선교사촌을 체험하는 수업이 학생들 사이에서 선호도 1위였다.

김 교수는 “학생들이 한복의 아름다움과 전통, 변천사 등을 흥미로운 콘텐츠로 알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면서 학생들의 호응이 높았다”라며 “한남대의 스토리와 접목해 선교사촌을 통해 근대한복을 재현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한복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한남대를 설립한 선교사들이 입었던 한복 자료를 바탕으로 고증하고, 한남대 선교사촌의 인프라를 활용해 근대한복을 홍보하는 일도 계획 중이다.

한복을 모티브로 한 ‘창업’

김정아 교수는 국내의 굵직한 패션 기업인 ‘이랜드’에서 7년간 아동복 디자이너로 활동했던 이력을 갖고 있다. 패션을 전공하고 기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다보니 공부를 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겼고, 어린이 한복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어 이화여대에 진학해 학업에 몰두했다. 전통 복식의 대학원 과정은 이론중심이 통상적이지만, 김 교수는 제작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한복 인간문화재(서울시 무형문화재 침선장 11호 박광훈) 선생님을 찾아 수학하며 전통복식 전시회에도 적극 참여했다. 개인전을 비롯한 크고 작은 전시회만 20여차례 진행했다.

김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복과 전통 복식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다. 조금더 전통을 찾아가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며 “중국에서 한복을 자신의 문화라 선전하고 있는데 한복 전통과 원류를 모르면 빼앗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역과 협업해 전통 한복 소재를 개발하고 디자인 부문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기 위해 지난해 말 ‘한복 콘텐츠 연구소’를 창업했다. 연구소를 통해 졸업생들이 자신의 브랜드를 갖고 한복을 만들어 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고증작업을 비롯한 한복의 스토리와 다양한 역사를 연구하는 일도 진행하고 있다.

김 교수는 “창업을 통해 제품을 판매해 이윤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험실 창업인 만큼 가치있는 일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있게 보여주려한다”며 “데이터를 쌓고 연구를 지속 하다보면 판매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뜰에 가둬두지 않는 다양한 시도를 하면 한남대에서도 충분히 일본의 이세이 미야게 와타나베 준이치와 같은 세계적인 한복 디자이너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다.

‘한복, 근대를 만나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



STORY 2

창업명문
한남대 이야기

LEE,
EUN-HA

이은하 교수



**IT 접목한 도서출판
‘소라피리’**

“교육과 복지로부터 소외된 아이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접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다는 꿈이 모티브가 됐어요.
한국어와 한국문화, 특히 아동문학 콘텐츠를 IT와 결합한 융합콘텐츠를 만들어서
K-아동문학콘텐츠의 세계화 및 한남대의 위상을 높이고 싶어요”

아동문학가가 만든
유아통합발달
교육문화 콘텐츠

한남대 국어국문창작학과 이은하 교수가
창작 동화에 IT를 융합한
‘유아통합발달 교육문화 콘텐츠’로
실험실 창업에 성공했다.

이 교수는 교수이면서,
저명한 아동문학가이기도 하다.



4월 28일 '소라피리' 대표 이은하 교수는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서용원)에 어린이날 맞이 후원 도서를 전달했다.
후원도서는 어린이날을 맞이한 장애 아동 및 장애인 가족에게 지원됐다.

이은하 교수가 창업한 '도서출판 소라피리'는 첫 번째 교육문화 콘텐츠로
'소라봉 창의성 그림책 시리즈 전20권'을 출시했다.
이 교수가 기획, 구성, 집필한 창작동화 시리즈를 바탕으로
한남대 융합디자인학과, 회화과, 멀티미디어공학과, 국어국문·창작학과 등
재학생 15명이 일러스트, 디자인, 게임 개발 등 다양한 작업에 참여했다.

“다양한 전공의 우리학교 재학생들과 작업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보람도 컸어요.
분야별 전문성을 발휘하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하나의 작품입니다”

‘소라피리’ 창업까지는 학교의 지원이 큰 힘이 됐다. 한남대가 정부사업인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에 선발됨에 따라 이 교수의 창업아이템을 선정해 기업설립, 후속지원 등이 진행됐다.

또 고용노동부, 대전·세종 여성벤처협회의 ‘지식재산(IP)디딤돌 여성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사업에도 선정되었다.

이 교수는 창업지원 연구비 지원은 물론 3개월간 창업컨설팅을 받고 창업기업을 설립했으며 특허출원 1건과 상표출원 2건, 저작권 632건 등록을 마쳤다.

이 교수는 “사업 기간 동안 ‘소라봉 창의성 그림책 시리즈’ 20권 개발을 완료했으며, 이 시리즈는 아이들이 창작 동화를 바탕으로 교육용 게임으로 제작되어 활용할 수 있어 재미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이미 교보문고와 스마트스토어를 시작으로 쿠팡, 예스24, 알라딘 등에서도 출시했으며, 교육 현장의 반응이 뜨겁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교육적 생애 기간인 아동교육의 불균형 문제(아동의 무분별한 게임, 영상 시청)를 체계적, 실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교육과정과 아동의 신체·심리발달과정에 맞춘 아동문학 기반 게임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01



Fig. 01

소라봉 창의성 시리즈

Fig. 02

소라피리 창의성 시리즈

이번에 개발한 소라봉 창의성 그림책 시리즈는 지역사회에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조폐공사, 원자력연구소 등 공공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ESG협력 및 복지 소외지역의 아이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활용하는 등 양질의 콘텐츠로 인정받고 있다. 이 교수의 콘텐츠는 지난해 제2회 IP창업클럽 및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가해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특히 아동문학 콘텐츠를 IT와 결합한 융합콘텐츠를 만들어서 K-아동문학콘텐츠의 세계화 및 한남대의 위상을 높이고 싶다”며 “향후 한국어 동화 및 교육콘텐츠를 베트남, 몽골, 중국 등에 보급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하 교수는 총 400여 권의 아동도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산학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다중언어 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아동문학계의 교육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다.

02



STORY 2

창업명문
한남대 이야기

KANG,
PIL-SANG

강필상 졸업생



**‘보이스피싱 차단기술’이
주목받는 이유**

“한남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기술개발을 하고 창업으로 이어지기까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개발한 기술이 사업적인 부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 되길 희망합니다”

한남대
초기창업패키지
프로그램 참여,

(주)필상
‘씩다잡아’ 플랫폼



(주)필상 안필상 대표와 임직원들.

한남대 컴퓨터공학과(01학번) 졸업생인 강필상
(주)필상 대표가 보이스피싱 차단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씩다잡아’라는 플랫폼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

시간 자동 업데이트하다보니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받게 되는 악성 URL의 실시간 탐지도 가능해 98.6%의 차단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업체는 이런 기술을 인정받아 특허등록 1건과 특허출원 3건, 국제특허출원 4건 등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다.



강필상 대표는 현재 한남대가 운영하는 초기창업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장조사와 투자유치, 특허출원 지원 등을 받고 있다.

이 앱은 신규 URL 공격까지 탐지할 수 있는 유일한 모바일 앱으로 창업 1년여 만에 한국 전력공사, KT, 경찰청, 자치단체 등과 사업 수주를 완료했거나 계약을 조율 중이다. 기존 URL 차단 방식은 피해자가 발생하면 해당 공격 URL을 수동으로 분석해 리스트를 업데이트 해놓으면 이를 기반으로 탐지해 차단하는 방식이다. 차단까지 시간이 2주나 소요되며, 이마저도 리스트에 없는 URL은 차단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적으로 2만1832건이었으며, 피해금액은 5438억원에 이른다. 대전에서만 지난해 678건이 발생했으며 126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전년 대비 30% 가량 줄어든 수치이지만 과거 고령층 대상의 범죄였던 것이 신종 수법으로 전 연령층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태다.

(주)필상은 올해 자사만 사용가능한 탐지기술을 정부의 디딤돌 R&D사업으로 인공지능 서버를 통해 다른 모바일 장치에서도 사용가능하도록 개발을 완료했다. 이 기술을 경찰대학, KISA(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해 원천적으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필상이 개발한 ‘씩다잡아’ 인공지능 기술은 인공지능 탐지 모델로 신규 악성 URL을 실시간 자동탐지하는 기술이다. 실제 악성코드가 수행되기 전에 인공지능이 웹에 검색해서 악성 키워드 등 특징점을 추출해 학습하고 이를 차단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탐지된 URL을 실

강 대표는 “한남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기술개발을 하고 창업으로 이어지기까지 많은 도움이 됐다”며 “개발한 기술이 사업적인 부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약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STORY 2

창업명문
한남대 이야기



**이광섭 총장의
한남대 자랑**

한남대는 2023년 신입생 최종 등록률 99.9%를 자랑했다.
2023년 상반기 10년연속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선정, '창업중심대학' 선정,
글로벌대학30 사업 추진 선포 등 한남대의 미래를 책임질 굵직한 성과들이 눈에 띈다.

“2023년은 한남대에
도약의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광섭 한남대 총장이
취임 4년차를 맞으면서
한남대학교가
각종 국책사업 유치와
성과를 보이며
대전·충청 1등
사립대학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지방대학들의 정원 채우기가 어려운 현실
에서 한남대는 2023년 신입생 최종 등
록률 99.9%를 자랑했다. 2023년 상반기
기에만 10년 연속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
대학 선정을 비롯한 5년간 410억원 지원
을 이끌어낸 ‘창업중심대학’ 선정, 글로벌
대학30 사업 추진 선포 등 한남대의 미
래를 책임질 굵직한 성과들이 눈에 띈다.
2023년 상반기 한남대의 성과와 비전에
대해 이광섭 총장에게 들어본다.



1 올해 한남대가 이룬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우리대학이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3년 창업중심대학’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큰 성과다. 창업중심대학은 지역의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대학발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을 위해 우수한 창업 인프라 및 협업 네트워크를 갖춘 대학을 선정하는 사업으로, 올해 전국에서 한남대, 성균관대, 경상국립대 등 3곳만 선정됐다.

한남대는 중기부의 국고지원금 연간 약 82억원씩, 5년간 총 41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창업자를 발굴,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5년간 425개 기업지원, 매출액 2,400억 원, 고용 2,300명, 투자유치 470억 원, 상장기업 15개 배출을 목표로 한다. 대전·충청 창업지원을 위해 5년간 총 12억5,000만 원의 대응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신기술이 지역에 터를 잡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창업 인프라 조성 및 인재 양성에 나서게 된다.

2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되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며,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한남대는 창업중심대학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전시를 비롯해 권역 내 46개 창업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연간 85개, 5년간 총 425개 이상의 예비·초기·도약·실험실 창업기업을 선발해 창업교육,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원, 투자유치, 글로벌 프로그램, 지역 창업행사 등 창업지원 맞춤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남대는 ‘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동력 거점 기관’을 비전으로 △창업밀착형 전문인력 양성 △창업 단계별 혁신 성장 창출 △기업의 성과 가치 극대화 창출 등 3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지역 창업지원·육성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역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창업중심대학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10년 이상 축적된 창업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과학과 교통의 중심인 대전에서 창업 성장동력 거점 기관으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지난 2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를 방문했다. 어떤 성과가 있었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해 벤치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 총리는 한남대 창업보육센터에서 운영현황을 보고 받고, 우수 입주기업인 (주)페인트팜을 방문해 최신 기술창업 트렌드를 살펴보았다. 한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한남대 창업보육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한남대 창업보육센터는 1998년 지정 이후 총 139개의 보육 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78개의 입주기업을 보육 중이다. 특히 바이오·나노·화학 분야가 56%의 비율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입주기업들의 연평균 고용인력은 424명, 연매출액은 423억여 원이다. 한남대는 전국 대학 창업지수 종합 2위를 차지했고, 전국 최대 규모의 창업보육 시설 운영,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 등 창업 보육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한남대 대덕밸리 캠퍼스가 대덕특구 내에 위치해 있어 기술 협력, 기업연계보육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전시에서 캠퍼스 남측에 대전바이오창업원을 구축할 예정으로, 지역 우수 벤처기업 육성과 성장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4 한남대는 국제화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성과나 실적이 있다면?

우리 대학은 '2022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EQAS)' 평가에서 10년 연속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하는 '2022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에서 한남대학교는 평가 기준을 충족해 내년 2월까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평가지표는 유학생의 △불법체류율을 비롯해 △전략 및 선발 △유학생지원 △유학생관리 및 성과 등 4가지 영역에서 3개 분야 이상을 통과해야 인증대학으로 선정되며, 한남대는 모든 영역을 통과했다. 학생선발 및 입학 적절성, 국제화 사업 계획 및 인프라, 학업지원과 생활지원, 유학생 공인언어 능력 등이 모두 기준이상을 충족했다. 우리대학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의 외국인 유학생을 1200여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5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벌대학 30' 선정 사업이 화두다. 한남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Fig. 01
캠퍼스혁신파크 조감도

Fig. 02
창업중심대학 선정 축하 플래카드가 56주년기념관에 걸렸다.

Fig. 03
한덕수 국무총리 한남대 방문, 한덕수 총리가 한남대 입주업체를 방문해 특수페인트를 체험하고 있다.

Fig. 04
10년연속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선정

Fig. 05
글로벌대학 선포식, 지역인사, 지자체, 기업, 대학관계자들이 글로벌대학 사업 지원을 위해 뭉쳤다.

교육부가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지닌 선도대학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의 '글로벌대학30' 사업을 발표했다. 우리 대학은 대전지역 대학 중 가장 먼저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하는 '글로벌대학30사업추진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을 통해 각계의 추진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와 '글로벌대학 한남대학교'의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선포식에는 설동호대전시교육감과최충규대덕구청장, 김장성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장(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황순화대전세종충남여성벤처협회장, 송상선 연구소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응원메시지를 전했고, 김병순 대덕이노폴리스 벤처협회장과 맹필재 바이오헬스케어협회장 등도 추진 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글로벌대학 30 사업'은 비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2023년 10개 내외, 2027년까지 총 30개 대학을 선정해 5년간 총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이 사업으로 전략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지닌 선도대학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한남대는 67년간 지역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온 대학이다. 대학혁신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 산업계, 연구기관, 지역주민과 긴밀히 협력하는 지·산·학 혁신모델을 창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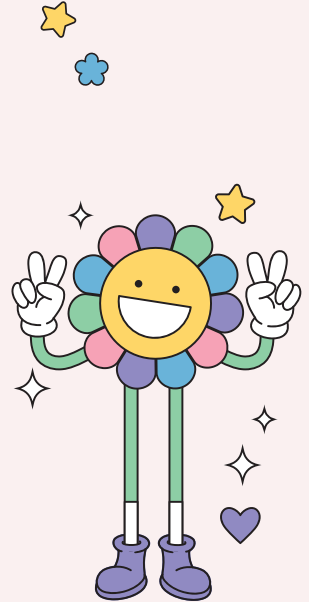
STORY 3

마음 따뜻한
이야기

1

발전기금 2억원 쾌척한 80대 노교수의 ‘나비효과’

한남대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서초순 명예교수



“인생의 중요한 시기
20여 년을 보낸 곳이 한남대이어서
늘 자랑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명문 한남대가 더욱 발전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정성균선교관 3층 예배당에
서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발전기금 2억원을 쾌척하고 학교 사랑을
실천했던 서초순(88) 영어교육과 명예교수
에게 ‘대학장’을 수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학장은 창학이념에 입각해 대학 발전에
뚜렷한 공을 세운 인사에게 수여하는 영예
로운 포상이다.

서 교수가 근무했던 사범대학의 심포지엄
홀은 서초순 교수의 이름을 따 ‘서초순심포
지엄홀’로 명명했다.

서 교수의 대학장 수여는 지난해 연말 한남
대에 보내온 뜻밖의 선물이 계기가 됐다. 그저
“한남대와 학생들을 위해 요긴하게 쓰시라”
는 메시지와 더불어 현금 2억원을 선뜻 입금
했다. 서교수는 한남대 ‘명예의 전당’에 이름
을 올렸다.



“한남대는 과거부터 중부권 최고의 대학으로
평판이 높았다.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서
좋은 교수님들께 교육을 받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길 기도하겠다.”



서초순 교수는 1979년 한남대에 교수로 임용돼 영문학과와 영어교육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2000년 퇴직했다. 그 후로 2010년까지 10년간 명예교수 생활을 하며 교단에서 제자들을 길러냈다.

서 교수는 한남대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의 효사이기도 하다. 과거 야간대학에 있던 영어교육과를 독립학과로 세웠고, 본인이 적극 지원해 영문학과에서 영어교육과로 소속을 옮겨 퇴직 때까지 영어교육과를 크게 성장시켰다. 서 교수에게 배운 제자들 상당수는 전국 곳곳의 중·고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영어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광섭 한남대 총장은 “서 교수님은 우리 대학 설립자인 인돈 선교사의 교육지침을 충실히 지켜오신 분으로 기억에 남아있다”며 “은퇴 이후 한남대를 그리워하며 장학금 기부를 계획하시고 거액을 기탁하셔서 학교에 큰 힘이 되어 주셨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한남대는 과거부터 중부권 최고의 대학으로 평판이 높았다.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서 좋은 교수님들께 교육을 받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길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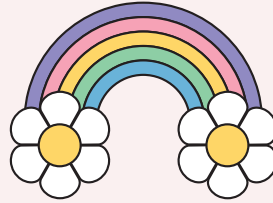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이 된다는 ‘나비 효과’와 같이 서 교수의 실천이 한남대 발전에 큰 도약으로 확산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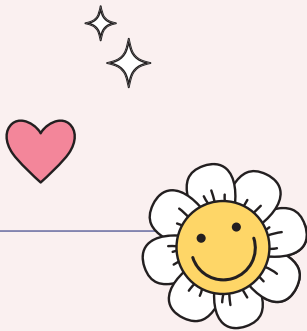
STORY 3

마음 따뜻한
이야기

봉사는 내 삶의 동기부여 한남대 봉사왕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민윤정 졸업생



“힘들고 귀찮다는 생각은
봉사를 하고나면 눈 녹듯이 사라져요.
어르신의 감동하는 모습,
학생의 밝은 웃음이 힘이 나게 합니다.”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민윤정(23) 학생은 대학 재학 4년 동안 623시간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 2월 한남대 제61회 학위수여식에서 민씨는 봉사활동 우수자(1위)로 선정돼 ‘한남 봉사상’(총장상)을 받았다. 민 씨는 4년 동안 공식 집계된 시간만 623시간의 봉사활동을 했으며, 등록하지 않은 시간을 포함하면 700시간을 훌쩍 넘긴다.

한남대는 인성교육 차원에서 전교생이 72 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해야 졸업이 가능한 ‘봉사활동 졸업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회복지학과와 의경우 학과 특성상 20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민 씨에게 봉사는 졸업요건을 갖추기 위한 의무적인 활동이 아니라 삶의 원동력이자 동기부여 수단이었다.

민 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장애인 친구를 돕는 보조활동 봉사를 해왔다. 발달장애 학생을 위해 봉사를 하면서, 입시 스트레스로 극단적 행동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벼랑

끝에 선’ 이들을 위한 직업을 갖고 싶다고 진로를 정했다.

민 씨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인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봉사동아리에 가입해 청소년 위캔센터를 통한 봉사활동과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 봉사, 장애인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장애인 봉사부터 어르신 봉사, 청소년 봉사 등 분야별로 각자 봉사의 매력이 달랐다.

“어르신들은 정말 작은 봉사와 관심에도 크게 기뻐해주세요. 청소년들은 무한한 가능성과 호기심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보람이 커요. 학업과 아르바이트 등 모든 일에 지쳐있던 순간에도 봉사를 하고나면 이래서 봉사를 하는구나 하는 감동을 많이 선물해주었습니다.”

민 씨는 전공을 살려 복지관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만나는 게 꿈이다.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을 위해 활동을 해왔던 경험이 특정 대상을 가리지 않고 ‘종합복지’를 하고 싶다는 포부를 갖게 됐다.

한남대 이름을 빛내는 봉사왕의 활약이 기대된다.

제61회 학위수여식에서 민윤정 학생은 ‘한남봉사상(총장상)’을 수상했다.



STORY 3

마음따뜻한
이야기

3

학생들이 뽑은
최고의 교수는?한남대 경영학과
박경희 교수

“수업은 교수가 일방적으로
노력한다고 이뤄지기보다
학생들의 열의와 참여가 함께할 때
완성도 높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박경희 교수가 혁신적 교육모델 수업평가 우수교원 심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한남대는 매년 1학기가 되면 전년도 우수교원을 선정해오고 있다. 수업운영사례보고서와 수업평가 결과를 최종 합산해 최종순위를 결정하며 박 교수는 최종 합산점수 92.43점으로 최고의 우수교원으로 선발됐다.

박 교수는 지난 2020년 9월 한남대에 임용됐다. 박사학위 취득 후 바로 교수로 임용되다보니 한남대 학생들은 박 교수의 첫 번째 제자이다. 첫 제자에 대한 박 교수의 애정은 남달랐다. 1시간의 수업을 하기 위해 3~4배의 시간을 들여 준비를 했다. 일방적이지 않고, 진부하지 않으며 학생들과 함께하는 수업을 만들어가고 싶었던 박 교수는 수업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했다.

그의 전공은 ‘재무관리’다. “재무관리 수업이 수확도 많이 나오고 평소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개념이 아니다보니 어려울 것 같다는 선입견이 컸던 것 같아요.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많아 최대한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박 교수는 “우리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수업에 임하게 되면서 어렵게만 느꼈던 전공과목이 재미있다고 느끼게 된 것 같다”며 “이후에는 칭찬과 격려만 더해주면 우수한 성적으로 학생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뿌듯했다”고 말한다.

박교수는 학생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이 실제 기업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강의실 밖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가르친다. 이번 학기 ‘투자론’ 수업은 모의투자 시스템을 활용했다. 학생들에게 각각 1억원의 투자금을 지급하고 한 학기동안 마음껏 주식 투자를 하게 했다.

“요즘 Chat GPT가 전 세계의 화두잖아요? 하지만 Chat GPT를 학습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학교도 많아서 이를 활용한 교수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Chat GPT와 유사한 기술은 결국 우리 생활에 더 보편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는 트렌드에 맞춰 수업에 다양하게 적용 중이다. Chat GPT를 활용해서 적절한 질문을 하고 그 답변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는 활동 등 현실로 다가온 AI 시대에 맞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진행중이다.

박 교수는 “수업은 학생들과 교수가 함께하는 거대한 조모임이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STORY 3

마음 따뜻한
이야기

4

‘빛나는 연구업적’
윤국노, 이성용 교수의
연구실 이야기

화학과 윤국노 교수와
영어교육과 이성용 교수가
2023년 한남대 연구업적 우수교원으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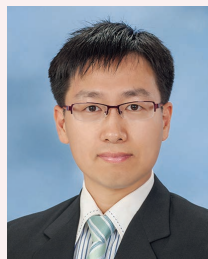
연구업적 우수 교원은 최근 3년간의 국제·국내 저명학술지의 연구실적과 논문점수 등을 합산해 인문·법학·예능·경상·사회계열과 이학·공학계열에서 각각 1순위를 선발했다.

신약, 헬스케어 등 나노바이오 소재융합연구 윤국노 교수(화학과)



윤국노 교수는 간·폐 등 유연한 장기의 출혈이 발생할 때 생분해성 고분자를 넓게 방사해 빠르게 지혈하는 시스템을 연구해 특허출원을 했다. 나노입자를 화학적으로 표면을 기능화시켜서 몸 안에 문제가 되면 질병을 찾아가 표적 치료하는 초미립자 전달 물질 개발도 진행 중이다. 최근 윤 교수는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의 신약 R&D생태계구축 사업에 참여했다. 이번 사업 참여로 2조4000억원 담석용해제 시장에 도전하게 된다. 윤 교수가 운영하고 있는 나노바이오소재융합연구소는 바이오메디컬 및 나노소재화학 기반의 신약, 헬스케어 산업 분야의 특성화를 통해 차세대 나노기반 헬스케어 신소재 개발 원천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윤 교수는 지난 10년간 국내외에 11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특허등록 9건, 특허출원 22건 등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우수 산학협력력 전문가로 선정되었다.

컴퓨터 테크놀로지 활용한 영어교육 연구 이성용 교수(영어교육과)



이성용 교수의 연구분야는 첨단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영어교육이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영어교육과 메타버스 및 AI 챗봇 활용 교사교육 분야가 주된 연구 분야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ChatGPT’를 영어교사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됐다.



당초 이 교수는 문화간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 영어교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나 지난 2021년 한남대에 부임한 이후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방식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면서 컴퓨터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적극적인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교수의 첨단 연구 내용은 한남대에 재직 한 이후 국제저명학술지 SSCI급 논문만 9편에 이르며 국내학술지 2편을 출간했다. 현재 SCI급 논문 2편이 추가로 게재 예정이다. 이들 논문들은 SSCI급 저널 전체 순위에서 최상위에 속하는 저널들이다. 최근에 게재 승인이 완료된 ‘ChatGPT 활용 언어교육’ 논문은 연구분야에서 선두로 손꼽히고 있다.

STORY 4 학생들의 활약상

1

교사 양성의 메카 한남대 사범대학

“오랜시간 교사 양성을 해왔고,
임용시험 노하우와 분위기가 지속적인
좋은 성적의 비결입니다”

한남대학교 사범대학이
교사 양성의 메카로 주목받고 있다.
2023학년도 대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최종합격자 발표에서
한남대 국어교육과 졸업생이
‘수석’으로 선발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2년연속 수석합격자를 배출했다.

한남대는 올해 국어교육과 졸업생 외에도 다전공으로 국어교육을 이수한
학생 4명이 국어교사 선발시험에 합격했으며, 충남 7명, 경남 2명, 경기 2명,
대전 1명, 사립학교 2명 등 총 14명의 국어교사를 배출했다.

미술교육과의 성적도 화려하다. 2023학년도 중등 임용고시(미술)와 사립
학교 임용에서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생 12명이 최종 선발되었다. 합격
지역과 인원은 충남 5명, 전북 1명, 전남 1명, 경북 1명, 경기 3명, 대전 1명
등이다. 한남대 미술교육과는 이전에도 2022년 8명, 2021년 9명의 미술
교사를 배출했다.

한남대 사범대 전경.



Warm Hearts,
Creative intellectuals



한남대학교 # 사범대
2023학년도 대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최종합격자
수석 # 2년연속 수석합격자 배출

이같은 성과를 만들기까지 학과의 노력은 대단하다.

한남대사범대학은 재학생들의임용고시준비를 위해졸업생으로
구성된 멘토 교사단을 운영해 교육 현장에 대한 적응 능력
함양을 지원하고 있다. 학과 교수들과 선배들은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2차 시험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소규모 임용고시 스터디, 선후배 튜터
링 등 재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학과 문화가 조성돼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 속에 교사 선발 인원이 한 지역에
1~2명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한남대의 임용고사 합격자
수는 괄목할 만한 성과다.

STORY 4 학생들의 활약상

2

3년만에 재개된 해외 봉사 ‘눈길’

한남대학교 학생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실시하지 못했던
해외봉사를 3년 만에 재개했다.

재학생 58명과 교직원 7명으로 구성된
한남대 해외봉사단은
지난 겨울방학을 맞아 12박 14일의 일정으로
베트남 빈증성 디안시에 위치한
자선센터 등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한남대는 현지 자매대학인 반랑대학교와 협력해
봉사활동을 준비했으며,
반랑대 학생들이 한남대 학생들과 함께 발대식을 갖고
문화교류와 한국어 통역 등 현지 봉사활동을 지원했다.



두 대학 학생들은 2001년 설립된 빈증성 디안시에 위치한 큐훙(Que Huong) 자선센터를 방문해 장애어린이와 보육원생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자선센터는 300여 명의 장애아동과 부모가 없는 어린이들이 생활하고 있어 봉사의 손길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벽화를 그리는 미술팀을 비롯해 한국어교육팀, 태권도교육팀, K-POP팀 등으로 나눠 자선센터 원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ESG플로깅 봉사도 실시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하원(교육학과4) 학생 대표는 “봉사를 하는 내내 능동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한남대학교 장학이념중 하나인 봉사정신을 깨닫게 됐다”며 “리더로서의 봉사자로 거듭나게 됐다”고 말했다.

한남대 동계해외 봉사단 유승연 단장은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반랑대 학생들과 협력해서 봉사를 진행했다”며 “베트남 현지 대학생들에게 봉사 프로그램과 시스템 자체를 전수하는 봉사 사절단 역할도 하고 돌아와 부딪히다”고 말했다.

HANAM Warm Hearts,
Creative intellects



한남대학교 베트남 봉사활동
한남대학교 반랑대학교와 협력
문화교류와 한국어 통역 등 현지 봉사활동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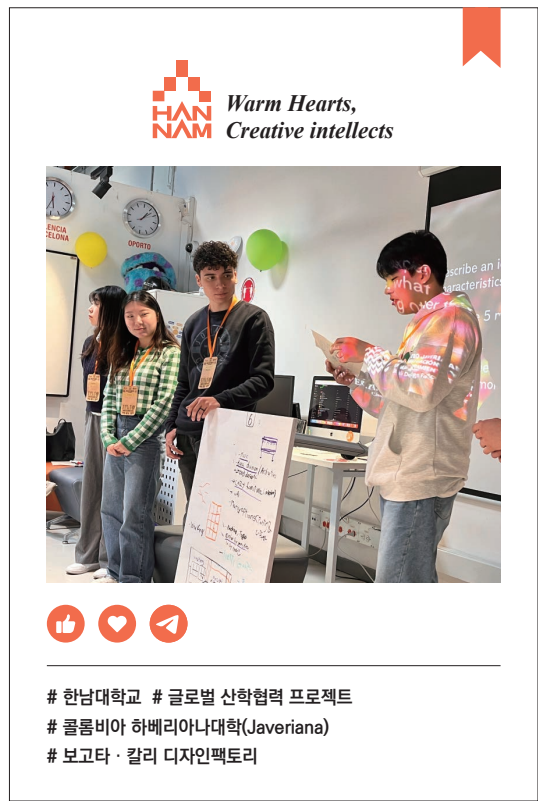


STORY 4 학생들의 활약상

3

디자인팩토리

국내최초 콜롬비아 현지기업과 산학협력



한남대학교 한남디자인팩토리가
콜롬비아 하베리아나대학(Javeriana)
보고타 · 칼리디자인팩토리와 함께 현지 기업과
글로벌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해 화제다.
국내대학 디자인팩토리가
해외 현지 기업의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은 한남대가 최초다.

한남대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10박 12일의 일정으로 콜롬비아 보고타 · 칼리 디자인팩토리와 '마이크로 디자인 챌린지(Micro-Design Challenge)'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하베리아나대학은 콜롬비아 명문 사립대학으로 한남디자인팩토리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 수업에 지난 2년간 전문가 멘토로 참여해왔으며, 이번 프로젝트에서 콜롬비아 커피생산자 연합회에서 설립한 커피체인업체 '후안발데스(Juan Valdez)'를 연계했다.

'후안발데스'는 34개국 1만1441개 카페를 운영중인 업체로 한남디자인팩토리에 콜롬비아의 커피 문화와 정체성을 세계화해 젊은 세대가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매장과 공간 조성 프로젝트를 의뢰했다.

학생들은 현지 커피 매장을 방문해 업체의 외관과 주문방식, 수요층 등을 파악하고 후안발데스 본사를 방문해 기업의 가치와 니즈를 확인했다.

한남디자인팩토리는 아티스트와 콜라보를 통해 매장의 내부디자인 개선과, 콘테스트를 통한 지역아티스트 발굴 등을 제안했다. 또 '친환경'과 '젊은층 타겟'이라는 키워드를 선정해 콜롬비아에 전무한 주차 없이도 손님이 직접 상품을 구매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를 적용, 친환경적인 전기차나 자전거 등을 사용할 경우 할인을 적용하고 지역의 대표 동물인 '말'을 타고 올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바이럴 마케팅도 제안했다. 이번 글로벌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한남대에서는 18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한남대 디자인팩토리 관계자는 "콜롬비아 현지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국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국제적인 창의·융합역량이 증진됐을 것"이라며 "국내 대학 가운데 최초로 해외 기업과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물꼬를 트게 돼 의미가 컸다"라고 말했다.



인성중심
창의인재

가치를 빛다,
세상을 빛낸다.

기독교 명문대학인 한남대학교는
따뜻한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배출합니다.
한남대학교 학생들은
소중한 가치를 빛어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할 것입니다.